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자료</h1>	2016. 12. 14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과장 박영철 / 사무관 이재광 (Tel. 044-200-2397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“黃대행, 野3당대표 면담도 사실상 거부” 보도 관련

(문화일보, '16.12.14)

□ (보도내용)

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·정 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. 총리실은 국정 수습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은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(해명내용) “황 대행이 야·정협의체 구성거부에 이어 야3당 대표와의 면담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”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

-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야당을 포함한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
- 다만, 국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중에 있음을 밝힘